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앞장

# 전북도,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관리 총력

## 전북도, 5개 시·군·7개 공기업·출연기관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가 공직사회부터 '배려풀 전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우수기관과 사례를 선정했다.

'배려풀 전북'은 아이(baby)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배려문화를 통해 아이 가득(full)한 더 좋은(better) 전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직장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전개하는 캠페인(운동)이다.

도내 전 시군과 공기업·출연기관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모한 결과, 부안군을 비롯한 5개 시·군과 전북테크노파크 등 7개 공기업·출연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군에서는 부안군이 최우수상을, 김제시와 완주군이 우수상, 익산시와 무주군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부안군은 '육라벨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다자녀 복지포인트(첫째야 25만원, 둘째야 50만원, 셋째야 75만원) 및 출산 시 인센티브 추가 지급, 월 1회 부서장 없는 날 운영, 사계절 휴가 주간 운영(3개월 이내 단기휴가) 등 청내 직장환경 정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이울러, 민간기관 등으로 확산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군 농공단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출산·양육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 협약 추진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제시와 완주군은 관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확대운영 계획안에 대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제시는 부부토코, 예비 아빠·엄마 육아 기술교육, 가족 체험, 저녁이 있는 가족 밀키트 제공 등 '직장인 양육의 기술' 프로그램과 함께, 가족친화 선도기업 협약 등을 제안했다.

완주군 역시 가족친화 우수기관 지원사업 및 직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안을 제출했다.

공기업·출연기관 공모는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원수 100명 이상인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테크노파크를 가 그룹으로, 100명 미만은 나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가 그룹 최우수상은 기존 가족친화 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키즈 플레이 존 설치, 생애 첫 학교 입학기념 키트 제공,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캠핑·글램핑) 운영을 제안한 전북테크노파크가 선정됐다.

나 그룹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대상 반일 재택근무제 실시, 가족휴가 공모전을 개최해 자유로운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답한 국제교류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도는 이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군과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를 받은 우수기관은 받은 지원금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전국단위 저출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북도가 우수상으로 획득한 상금으로 활용된다.

한편, 도는 공직사회의 자율적인 '배려풀 전북' 운동 참여를 독려했기 위해 이번에 도 우수사례 5건 또한 선정했다.

주말의 시작(금요일)은 회의 없~Day로 운영하는 방안, 부서원을 2그룹으로 나눠 유연근무 사용, 매주 금요일 2~4시 퇴근해 가족과의 시간을 확대하는 플렉스 Day 도입 등 색다른 아이디어들이 제안됐다.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은 "시·군 및 공기업·출연기관의 제안 사업들이 현장의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입을 독려했다"며 "도 우수사례로 뽑힌 5건의 사업 제안을 적극 검토해 정인들이 가족과의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나아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정착돼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도내 저수율 88.5%로 평년 82.3% 대비 6.2% 높아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도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평년보다 높은 저수율을 보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도내 저수지 저수율은 88.5%인 6억1,700만 톤으로, 평년 저수율 82.3%인 5억7,400만 톤의 107.5% 수준을 보인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통상 영농철 모내

기가 완료되는 6월 10일까지 4억3000만 톤 정도의 농업용수가 필요하지만, 현재 보유 저수량이 6억1,700만 톤으로 농업용수 공급에는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도내에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1,770개소,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415개소 등 총 2,185개소의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도는 지난해 집중 호우피해로 복구 중인 저수지의 물 손실과 5~6월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변수로 판단하고 있다.

모내기 철 사용량 증가로 저수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영농기 기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 관리 필요할 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용수는 영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농민들의 생명수와 같다"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경우 시기별·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도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도, 방역수칙 준수 모범업소·기관 선정

## 10곳 선정해 도지사 표창

전북도가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10개 업소·기관을 선정해 지난 16일 전북도지사 표창을 전수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 건설교통국장 등 관련 실국장이 업소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표창을 받은 곳은 ▲전주 서문교회(목사 김석호), ▲익산 더 건강해짐(대표 박은혜), ▲점음생생소코인노래연습장(대표 조근호), ▲익산 아이비 실용음악산악연기학원(원장 강태욱), ▲군산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명재) ▲전주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용민) ▲정음농두장군(하행)휴게소 한식당(대표 정승환) ▲남원 육모정(대표 이소정) ▲김제 두꺼비회관지평선한우(대표 이화운) ▲(주)전북고속(대표 황의중) 등이다.

전주서문교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예배 이외의 행사를 취소·연기하고, 차량과 점심 제공도 중지하는 등 다른 종교시설의 모범이 됐다.

익산 더 건강해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소독 및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독려해 확산을 막아냈다.

점음생생소코인노래연습장은 출입구에 손 소독제, 체온계, 전자출입명부 등을 비치하고, CCTV를 통해 업소 이용자에게 마이크 커버를 제공하고, 손님이 퇴실한 이후에는 실내 소독도 빼놓지 않고 실시해 온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전주·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



전북도가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10개 업소·기관을 선정해 지난 16일 전북도지사 표창을 전수했다. (사진은 정음농두장군(하행)휴게소 한식당)

지관내 방역관리 지침 및 대응절차를 마련해 3, 11월 등 총 3회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철저한 시설 방역을 통해 감염을 차단했다.

정음농두장군(하행)휴게소 한식당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매장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카메라를 비치해 발열 증상 확인에 철저를 기했다.

남원 육모정은 비말 차단 칸막이 사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전자 자동체온계 등을 통해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김제 두꺼비회관지평선한우는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와 전자출입명부, 체온계 등을 비치하여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전북고속은 운행 중인 시외버스 146대에 차량용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방역수칙 준수로 해외입국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범업소·기관들은 코로나19 감염이 취약한 곳이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과 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막는데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종교시설, 음식점, 체육시설, 문화시설, 학원·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운수시설 등 7개 분야 10개 업소·기관으로 분야별 추천을 받아 전라북도 공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수칙 준수로 도민들의 건강과 지역 상권의 위상을 지키는데 앞장서 온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느슨해지기 쉬운 방역의 방심으로 공멸을 세운 방역의 탑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한다"며 "모범업소에서 앞장서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숲길 조사인력 460명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손중호)는 비대면 정부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4,000개 봉우리를 대상으로 '숲길 자원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할 숲길 조사인력 46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숲길 자원정보 수집'은 산림청 비

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사업으로, 국내 4,000여 개 봉우리에 대한 숲길 자원정보를 수집해, 전국 숲길을 통한, 연결하는 데이터 구축 사업이다.

숲길 조사인력 모집 인원은 전국 8개 권역에 걸쳐 총 460명이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

상으로, 스마트폰 활용에 능숙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전자메일(123@kamount.or.kr)로 접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5월 18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허전 도 환경녹지국장, 용담댐 생활·공업용수 공급시설 현장점검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용담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공업용수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경강 등을 찾아 용수공급 및 하천수질 상태 등을 지난 16일 점검했다.

허전 국장은 이날 수자원공사 방문을 통해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만경강 공업용수 취수시설 및 어

우보 등을 돌아보고, 갈수기 용수 부족에 대비한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올해 1월 부임 이후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노력해온 허전 국장은 최근 진안군 전지역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댐 건설 후 20년간 물베분갈등을 겪고 있는 용담댐 용수의 전북

육 활용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행정을 통해 영산강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최근 논의하고 있는 만경강 하천수 취수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최대한 앞당겨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만경강 하천수 부족에 대비한 항구적인 공업용수 공급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